

# 서발턴의 정치적 실천 전략으로서의 공공공간

## - TDoR March를 사례로 -

2019-22730

환경계획학과 황수연  
(2019-2 공간구조연구)

### I. 들어가며

도시의 공공공간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학문적 영역에서 다양한 언어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안에서 공공공간은 때로는 민주주의의 실현 공간으로, 때로는 도시의 경관으로, 때로는 문화의 발상지로, 때로는 정치적 상징으로 논의되었다. 그와 함께 인문사회학 영역에서는 공공공간이 상징하는 공공성의 영역과 의미를 탐구해왔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과 함께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제3의 공간thirdspace를 찾아 나선 비판적 사고는 그동안 비가시화되어 있던 소수자minority를 논의의 영역으로 끌어들었다.

최근 몇 년 간, 공간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공공공간 속에 담지된 공공성에서 벗어난 소수자들을 공공공간과 관련하여 호명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왔다. 김준호(2011)는 공공공간에 대한 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시론으로 거리노숙인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공공공간과 소수자의 역학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김현철(2015)은 성적 반체제자로서의 성소수자의 퀴어문화축제와 그로 인해 전유된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분석하였다. 이현재(2015)는 마찬가지로 퀴어문화축제를 소재를 가지고 공공공간에서의 연대투쟁으로 해석하였다. 한윤애(2015)는 ‘축제적 전유’라는 개념을 통해 핀란드의 공공공간이 재구성되는 현상을 연구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유’나 ‘연대투쟁’ 등의 학문적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소수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 전략에서 공공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멀리 떨어진 연구자의 위치에서 현상을 학문적으로 분석하기 이전에, 보다 소수자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정치적 실천에 있어서 공공공간이 어떠한 전략적 위치를 점하는지를 중심으로 현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해당 연구를 통해 공공공간과 소수자에 대한 논의가 만날 수 있는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공공공간의 포함과 배제

‘공공공간public space’을 논하기 전에 공간space을 바라보는 관점을 먼저 정리하고자 한다. 공간의 지성사는 오랫동안 절대적 공간과 상대적 공간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절대적 공간은 공간을 절대적인 ‘용기(容器)’로서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이자 고정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반대로 상대적 공간은 대상 및 행위자가 공간에 선행하는 개념으로서, 다른 사물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창한 Henri Lefebvre는 ‘사회적 공간’을 제시했다. 사회적 공간은 사회의 생산물이며 각각의 사회는 저마다의 공간을 생



산한다. 그의 개념에 따르면 하나의 사회적 공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사회적 공간이 존재한다. 사회적 공간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그것들의 총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공간은 서로 침투적이며/이거나 서로 포개진다.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은, 분석을 위해 채취된 공간의 각 파편이 단 하나의 사회적 관계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다양한 관계를 보여준다는 사실이다(Lefebvre, 2000). Lefebvre의 사회적 공간론은 공간과 사회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로 공간의 논리를 설명하고자 한다(신승원, 2016).

이러한 Lefebvre의 사회적 공간론으로도 설명되듯, 공공공간은 무엇이 공간을 구성하는가, 그리고 누가 ‘공공the public’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경합의 산물이다(Mitchell, 1995). 서구 역사에서 공공장소의 시작으로 간주되는 그리스의 아고라agora에서부터, 공공장소는 이미 포함과 배제가 작동하는 공간, 선택된 이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었다. 공공공간이 특정한 성원들만 그 대상으로 함은 이미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지적되어온 바이다. Mitchell(1995)은 공공공간은 그 목적을 막론하고, 고안되기 시작되는 시점부터 그곳에 어떤 공중을 허용할 것인지를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물리적 공간이 그 접근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공공간에 보여도 되는 이들은 권력 질서에 의해 선택된 이들이다(Mitchell, 1995).

많은 비판지리학자들이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서, 맑시스트 관점에서 공공공간의 구성과정에 있어서 특정한 이들에 대한 포함과 배제가 작동하는 원리를 비판해왔지만, 공공공간이 허용하는 이들은 단순히 한 속성만으로 치환되지 않는다. 누가 ‘공공the public’을 구성하는가의 기준은 항상 변모해왔다. 시민으로서의 법적 권리와 달리 공공성에 대한 실재적 권리는 도덕적 잣대, 즉 누가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누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으로 규정된다(McDowell, 1999).

## 2. Subaltern<sup>1)</sup> Counterpublics

Fraser(1990)는 ‘Rethinking the Public Sphere’에서 Habermas의 공공영역 개념이 갖는 부르주아식 해석에 대해 비판하며 ‘서발턴 대항공간Subaltern Counterpublics’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서발턴 대항공간이란 주변화된 집단이 주류사회가 특정 공공장소에 부여한 본연의 기능에 저항해 자신의 필요에 맞게 전유하는 공적 공간이다. 이러한 서발턴 대항공간은 공공에서 배제된 이들이 담론적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역사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은 언제나 누군가를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누군가를 배제해 왔으며, 언제나 주류의 목소리로서 대변해온 하나의 지배적인 시선이 존재했다. 소수자는 주로 공공영역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해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러한 소수자들-서발턴들은 언제나 대안적인 또 다른 공공영역—서발턴 대항공간—을 조직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다. 서발턴 대항공간의 주요 기능은 해방적 잠재성에 있다. 서발턴 대항 공간은 서발턴 주체들이 잠시 쉬어가고 재조직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공공성의 경계를 흔드는 정치적 실천 행위를 도모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근간이 된다(Fraser, 1990).

Fraser가 제안한 공공영역의 논의는 물리적인 공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영역을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서발턴 대항공간을 포함하는 다양한 공공영역들은 하나의 구조적 환경 위에 서로

1) 한국어로는 ‘하위 주체’로 번역되는 개념이다. Gramsci가 처음 『옥중수고』에서 ‘폐권을 장악하지 못한 집단이나 계급’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했고 이후 사회학 분야에서 다양한 계보로 정의되어왔다. 그중에서도 Spivak은 ‘영향력 있는 정치담론들로 미리 정의되지 않은 다양한 종속적 처지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하며, 특정 집단을 지칭하도록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Spivak의 정의를 가져와 담론이 결여된 종속된 하위주체로서의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를 명시하기 위해 ‘서발턴’으로 그대로 표기하였다.



접쳐져 있다고 말한 대목에서 공공공간에 대한 함의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Fraser의 공공영역의 논의를 물리적인 공간에 적용시키는 방법은 Mitchell(1995)의 논의에서 살펴볼 수 있다. Mitchell은 Fraser의 논의와 공간에 대한 논의를 접합시켜 실질적으로 서발턴 대항공간이 사회의 공공성에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을 필요함을 설명했다. 정치적 조직들은 공공장소에서 더 많은 대중에게 자신들을 노출시키고 공간을 전유한다. 이들은 새로운 공공장소를 만들어냄으로써 스스로를 공공의 영역에 포섭하며 공공성의 경계—포섭과 배제를 만들어내는—에 대한 질문을 생산한다.

Mitchell은 소외된 이들이 자신들을 ‘공공the public’의 적실한 한 부분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장소를 경유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물리적인 공간의 점유 없이는 서발턴들의 정치적 실천이 가시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공간은 사회의 지배질서를 교란시키며 어딘가에 존재하는 현실감을 지닌 장소로서 일상생활로서 일탈된 타자적 공간을 생산하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정병연, 2007). 또한 공공공간은 ‘공공’을 구성하는 다양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이자, 이상화된 ‘공공의 이해’에 도전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Mcdowell, 1999).

이는 공간을 바라보는 Lefebvre의 관점과도 공명한다. Lefebvre 또한 전략적으로 서로 맞부딪치는 힘들이 압력과 행위, 사건들을 만들어냄으로써 공간을 전유하는 행위들이 지배적이고 위압적인 사회의 권력 질서를 전복하고, 교환과 지배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Lefebvre의 사회적 공간관은 바로 이러한 권력질서와 서로 다른 사회적 공간들 간의 포섭과 경합이 이루어지는 곳이 공간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최근 도시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Lefebvre의 ‘도시에 대한 권리’에 대한 접근에 대해 서발턴 대항공간이 중요한 전략지가 될 것임을 도출할 수 있다. 학자들마다 Lefebvre의 도시에 대한 권리에 명시된 권리들 중 중요하게 보고자 하는 지점들은 저마다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권리에 집중하고자 한다: 전유appropriation의 권리, 참여의 권리, 차이의 권리가 그것이다.

전유의 권리는 사적 소유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교환가치보다는 사용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도시 공간을 생산하고 정의하는 권리이다. 어떤 집단의 필요와 잠재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간이 변형되면, 그 집단은 그 공간을 전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여의 권리는 도시 거주자들이 도시 공간의 생산을 둘러싼 의사결정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도시 거주자들이 능동적·집합적으로 도시정치에 관여하면서 스스로 규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Fraser의 다양한 정치 논의(인정 투쟁 등)에서 중점이 되는 ‘동등한 참여’와 이어지는 부분이다. 세 번째, 차이의 권리는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로서 모든 것을 동질화하려는 권력에 의해 결정된 범주속으로 강제로 분류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차이의 권리는 실천적인 행위와 행동, 궁극적으로는 투쟁으로부터 얻어진다. (강현수, 2010)

서발턴 대항공간은 이 세 가지 도시에 대한 권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첫째, Mitchell이 지적한대로 공공공간은 서발턴들이 사회에 자신들을 드러내고 공간의 포섭과 배제의 경계를 흔드는 정치적 실천의 장으로서 기능한다. 서발턴들이 공공공간을 자신들의 정치적 실천의 장으로서 사용하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이 공간을 전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유의 권리이다. 이강원(2013)은 자신의 연구에서 소외된 노인들이 어떻게 탑골공원이라는 공공공간을 전유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둘째, 서발턴 대항공간은 도시공간의 생산을 둘러싼 의사결정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공공성’ 또는 ‘시민권’의 경계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Fraser의 논의에서 공공영역은 담론형성의 장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의 형성과 인정의 장이다. 공공성의 경계는 역사 상 단 한 번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적이 없었다. 언제나 그 경계와 성원권은 논쟁의 장이었으며 투쟁의 대상이었다. Fraser는 이 문제에 있어서 과거 사적(私的)인 문제로만 여겨지던 가정폭력의 문제가 페미니스트 서발



턴 대항공간을 통해 공적 문제로 떠올랐음을 예시로 들고 있다. 공공성이란 항상 논쟁과 경합을 통해 형성되는 장으로서, 서발턴 대항공간은 이러한 새로운 공공성의 포섭을 가능하게 하는 장으로서, 참여의 권리가 주어지는 성원권에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한다.

셋째, 서발턴 대항공간은 공공공간에 다양한 사용주체들을 등장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시킨다. 살균되고 동질화된 공공공간에 권력 질서가 배제한 서발턴들의 등장은 사회가 다양성을 보게 하고 그에 대해 논의하는 담론의 장을 생산하는 기회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발턴 대항공간의 중요성을 전제로, 서발턴들이 자신들을 억압하는 주류 권력 질서에 맞서기 위해 정치적 실천을 기획하고 수행함에 있어 (무)의식적으로 공공공간의 전유를 전략으로 채택함을 보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실천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지라도, 도시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임을 보이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연구의 대상이 되는 참여자들이 현상을 어떠한 맥락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리고 참여자들에게 있어 특정 행위의 의미와 감정 등을 이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한다. 특정 현상에 대한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사례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의 핵심은 하나의 의사결정이나 일련의 의사결정이 왜 일어났으며,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조명하고자 하는 연구라는 Schramm(1971)의 정의에 따라 설계되었다.

사례로는 2019 TDoR March를 선정하였다. 본 사례는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라는 국제적인 추모일을 다루는 행사로서,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소수자들이 도시의 공공공간으로 터져나와 도시공간을 전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데에서 연구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보다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던 의례가 공적영역으로 그 배경을 옮겼다는 데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또한 최근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성소수자 인권 문제와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등으로 한국사회를 흔들고 있는 성소수자 집단 중 가장 취약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인권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공공공간 전유가 갖는 의미와 이들에게 공공공간이 갖는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자료의 수집 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인터뷰를 선택하였다. 문헌조사의 경우 연구주제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주최 측에서 전달받은 행사 관련 문건들과 관련 언론 보도, 연대단체·참가단체의 공개 후기록 등을 참고하였다. 인터뷰는 정치 행위자로서 주최자와 참여자로 크게 나누어 주최측은 특수 표집 선정으로, 참여자 측은 눈덩이 표집선정으로 인터뷰이를 모집했으며, 심층면접, 통화인터뷰, 서면인터뷰 등을 통해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보다 열려 있는 인터뷰를 위해 연구자는 인터뷰 과정에서 ‘정치 행위’, 혹은 ‘전략’이라는 말을 질문에 쓰지 않았으며, 자유롭게 본인들의 경험에 대해 서술하도록 유도했다.



L	TDoR March 주최단위 ‘트랜스해방전선’ 운영위원	심층면접 (1차: 11/30, 2차: 12/13)
Y	제2회 TDoR March 기획단원	서면 인터뷰
Z	연대단위 ‘용산나눔의집’ 원장사제, 연대발언 참여자	통화 인터뷰 (12/2)
N	연대단위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활동가	통화 인터뷰 (12/13)
D	연대단위 참여자	서면 인터뷰
S		
K		
M		
H		
C	이태원 거주자	서면 인터뷰
G	이태원 거주자, 제2회 TDoR March 자원활동가	서면 인터뷰

【표 1】 연구 참여자 목록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 연구자의 위치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소수자에 대한 연구인만큼 연구 윤리에 대한 각별한 성찰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주최 측 단위와 오랫동안 연대해온 공동주관 단체에서 2년간 활동가로서 활동했던 이력이 있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 있어서 내-외부의 경계에 있는 중간자적 입장이었다. 이러한 연구자의 위치로 인해 상대적으로 인터뷰이들의 신뢰도와 라포 형성 및 연구와 관련된 인터뷰이를 소개받는 데에도 용이했다. 연구자의 중간자적 관계가 없었을 경우, 안전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성소수자 인터뷰이들에게 접근할 때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며, 연구자의 위치로 인해 보다 솔직한 내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음을 밝힌다.

#### IV. 사례연구: TDoR March, 위대한 트랜스들의 보통의 생존

본 연구에서는 ‘TDoR March’라는 행사를 사례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서발턴으로서의 트랜스젠더의 위치성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트랜스젠더’라는 용어는 용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그 범위 또한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루인(2006; 2010; 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트랜스젠더를 출생 시 지정받은 성별(지정성별)과 본인의 성별이 불일치하는 이들을 총칭하는 말로써 사용했다. 이는 여성-남성이라는 성별 이분법에 들어맞지 않는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Nonbinary Transgender를 포함한 젠더퀴어Gender Queer<sup>2)</sup>를 포괄적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에서 트랜스젠더는 ‘성소수자 중 성소수자’로서 존재한다. 성별 정정 과정이 법제화조차 되어 있지 않아 대법원 예규<sup>3)</sup>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트랜스젠더가 겪는 젠더 디스포리아gender dysphoria<sup>4)</sup>는 몸에 국한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그들에게 찍힌 낙인은 노동, 의료 등 그들의 삶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트랜스젠더들을 위협에 몰아넣고 있다. 의료적 성별정정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계급적 차이와 성별규범을 가로지르는 몸의 실전은 이들을 더욱 더 어려움에 빠지게 만든다. 사회적인 낙인은 트랜스포비아transphobia<sup>5)</sup>로 인한 범죄로 직접적인 살인까지 이어지기도 하며, 많은 트랜스젠더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또한 최근 트랜스배제적인 페미니즘(TERF; 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m)의 등장으로 페미니즘 내부의 균열로 인해 이들의 몸은 극도로 예민한 정치적 장(場) 위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 갈

2) 젠더퀴어Gender Queer는 성별 이분법으로 규정되기를 저항하는/규정되지 않는 성소수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5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4) 젠더 디스포리아Gender Dysphoria는 지정성별과 본인의 성별 사이의 차이에서 오는 불쾌감을 말한다.

5) 트랜스포비아transphobia는 성전환과 트랜스젠더에 대해 적대적 태도와 감정을 갖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젠더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적 혐오, 공포, 분노, 불편함으로 설명된다.



등 속에서 트랜스젠더의 목소리는 또다시 ‘말할 수 없게 된다.’ 최근 한국에 소개된 실라 제프리스<sup>6)</sup>의 이론과 그의 방문은 더욱 더 이러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를 부추겼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랜스젠더의 가시화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 1. TDoR March의 배경

TDoR(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은 1998년 트랜스젠더 혐오범죄로 희생당한 리타 헤스터(Rita Hester)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매년 11월 20일에 트랜스젠더의 존엄과 권리를 가시화하는 국제적인 기념일이다. TDoR은 전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를 향한 폭력을 가시화하고, 혐오범죄로 죽은 트랜스젠더들을 기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트랜스 정치trans politics에 있어 인종, 성별, 계급 등과 교차하며 나타나는 소수자성에 대한 가시화 운동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를 중심으로 2016년부터 촛불 추모회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2016년 촛불추모회는 홍대입구역 인근 경의선 숲길 공원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한국성소수자문화인권센터가 공동주최하여 TDoR을 소개하고, 연대자들의 발언과 촛불추모회로 구성된 형태로 시작되었다. 이듬해에는 규모가 커져 실내 공간에서는 사진전시회, 심리상담, 영화 상영이, 야외 공간에서는 마찬가지로 경의선 숲길 공원에서 촛불추모회가 진행되었다. 2018년에는 실내에서 이루어진 사전행사와, 야외에서 이루어진 연대발언 및 연대공연 등을 동반한 촛불추모회로 이루어졌으며, 2019년에는 ‘라온’이라는 단체의 사진전으로 이루어진 사전행사와 본행사가 마포구의 공간을 빌려 실내에서 이루어졌다. 조각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TDoR 촛불 추모회는 추모와 자기 돌봄, 자조(自助), 공동체의 역량강화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조각보’ 활동가 N과의 인터뷰).

반면 2017년 12월 25일 창립된 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을 중심으로 시작된 TDoR March는 집회와 행진의 형식을 띠며 ‘가시화’와 트랜스젠더 의제의 정치화를 가장 큰 목적으로 시작했다. 2018년 11월 17일 녹사평역 3번 출구 이태원 광장에서 제1회 TDoR March가 “그만 죽여라, 우리도 살고싶다!”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그간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내에서만 기려지던 트랜스젠더의 죽음과,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트랜스혐오적인 사회 분위기에 대한 일갈이었다. 일상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혐오와 차별, 그리고 그 일환의 트랜스포비아<sup>7)</sup>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비가시화된 트랜스젠더의 삶을 공공공간에서 드러냄으로써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긴장을 형성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2019년 11월 16일, 마찬가지로 이태원 광장에서 제2회 TDoR March는 “보통의 트랜스들의 위대한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행진을 무사히 마쳤다. 제2회 TDoR March는 영국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LUSH’의 후원을 받아 이태원 광장에서 버스행사, 연대발언 및 연대공연, 그리고 행진March로 이루어졌다. 제1회 TDoR March가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가들이 연대하는 발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제2회 TDoR March는 ‘보통의 트랜스들’의 삶 그 자체를 조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두 행사 모두 가시화라는 취지와 부합하게 이태원 거리를 뚫고 행진함으로써 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6) 실라 제프리스(Sheila Jeffreys)는 TERF 성향의 페미니스트 학자로, 트랜스젠더들이 성전환 수술로 억압적인 사회의 이분법적 성역할을 재생산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소수자성을 부정했다. 주 저작으로는 『젠더는 해롭다(원제: Gender Hurts)』 등이 번역되었다.



## 2. 이태원의 장소성<sup>7)</sup>

이태원은 성소수자에게, 특히 트랜스젠더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공간이다. 이태원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미군 문화의 유입이 이루어지는 창구가 되었다. 1980년대 각종 국제 행사들을 거치면서 점차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급증하며 전성기를 맞이했으나,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군 부대 이전 발표와 경쟁성 상실로 사실상 소비공간, 상권으로서는 쇠퇴하고 있었다. 상권의 쇠퇴가 가져온 지대와 임대료 하락으로, 새로운 집단들을 받아들였다. 1990년대 이후 산업연수제를 통해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이 이태원에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이들이 만들어낸 외래문화의 풍경들은 이태원을 ‘다문화공간’으로 만들어냈다. (한유석, 2013)

다른 한 편, 6·25 전쟁에 참전한 터키군들이 기도하던 장소였던 한남동 부지에 1975년 이슬람 사원이 지어지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슬람 종교가 이태원에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한국 이슬람의 중심이 되면서 이태원에는 이슬람거리 등이 자생하게 되며 다문화공간으로서의 풍경을 더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태원은 다양한 국적·계층의 외국인들이 다양한 문화영토를 형성하는 원인이 되어 초국가적 장소성을 지닌 공간이 되었다(고민경, 2009). 다양성의 공간으로서 이태원은 성소수자 공간이 형성되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이태원에서 성소수자의 공간 전유는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부터 이태원에 성소수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은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1990년대 게이바가 현재의 ‘게이 힐(Gay Hill)’ 안에 들어서면서 성소수자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트랜스젠더 클럽은 이태원 외곽에 위치하며, 이러한 성소수자 관련 업소들의 이태원 운집으로 더 많은 성소수자들이 이태원으로 몰려들었다.

한유석(2013)은 이태원이 성소수자 문화를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태원이 외래문화의 창구로서 한국 사회의 도덕률과 다른 도덕률이 적용되었으며, 다른 곳에 비해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이질적 문화 수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그에 대한 간섭도 덜하기 때문이었다.

이태원의 다양성은 ‘다국적’, ‘성소수자’ 등의 키워드를 넘어서는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다. 인터뷰 참여자들에 의하면 TDoR March에 참여하기 전 이태원에 대한 생각은 이 둘만으로는 수렴하지 않았다.

온갖 나라의 음식을 파는 식당과 다양한 사람들로 늘 북적인다는 이미지? 특히 비건 식당이나 비건 옵션인 음식을 파는 식당이 그나마 많아서 비건지향인 저도 스트레스 안 받고 있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D (연대단위 참여자)

‘한국전통문화를 상업화한 상품이나 콘텐츠의 전시장’, 좋아했던 아티스트의 미술작품을 보러 갔을 때는 ‘예술작품, 공예품을 작업하거나 전시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 빈민층에 대해 처음 배웠을 때는 이태원의 화려하고 쾌락적인 분위기 뿐만 아니라 자본의 침투 속에 터전을 빼앗기거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 K (일반 참여자)

이처럼 이태원은 단순히 국적의 다양성, 외래문화의 혼합뿐만 아니라 다양성이 전시되고 여러 선택지가 제공되는 공간이다. 이러한 이태원의 다양성은 장소를 이용하는 성소수자에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 ‘나 말고도 워낙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괜찮은 공간’ 등으로서, 상대적으로 안전감을 주고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이었다.

7) 보다 더 맥락성을 가진,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복합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Massey(1994)는 장소를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사회관계들을 함께 모아서 엮은 특정한 접합점으로 정의하고 있다.



## V. 정치적 실천 전략으로서의 공공공간

### 1. 장소 선택의 전략

이태원의 장소성을 살펴본다면 TDoR March가 이태원에서 열린 것은 우연적이고 임의적인 장소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선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주최 측 ‘트랜스해방전선’ 운영위원 L씨는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태원의 장소성을 설명했다.

이태원이라는 공간은 트랜스젠더의 삶터이기도 하지만 가장 밀려나있는 공간? 내가 가장 잊혀져야 하는 공간? 내가 있지만……. 맥락을 조금 말하자면 트랜스젠더에게 트랜지션<sup>8)</sup>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일단 이태원을 많이 가요. 근데 돈을 벌고 나서도 이태원에 있어. 근데 트랜지션 이전과 이후의 트랜스젠더는 아예 다른 사람이예요. 수술하고 나면, 그 때부터 정말 없었던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 그래서 그이들은 그 공간에 있지만 없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그냥 힙스터들의 거리로만 소비되고, 그런 맥락에서 그 밀집지역을 우리가 관통할 때에 전통적인 업소들을 같이 지나가거든요, ‘여보여보’라거나. 그런 곳들을 지나가면서 호응도 함께 얻고.

- L (주최단위 운영위원)

이태원이라는 공간은 트랜스젠더에게는 삶터이자 역사가 담긴 공간이지만, 동시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서 밀려나고, 이태원이 젊은 방문객들이 많은 상업지로 부상하면서—부상하기 위해서—잊혀진 (잊혀져야 했던)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공간을 트랜스젠더들의 안전 공간으로, 트랜스젠더의 삶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영토화<sup>9)</sup>함에 있어서 이태원이라는 장소가 큰 전략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 TDoR 행사를 ‘광화문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랑 ‘이태원에서 한다’, 그랬을 때는 느껴지는 느낌이 아예 달라지죠. 만약에 광화문에서 했었으면, 이건 정말 대의를 가져가고 싶었던 것처럼 보였을 거고... 이거는 정말 그냥 사진 찍고, 기자회견, 보도자료 그 정도로만 나갈 수 있었을텐데, 이태원이라는 공간은 일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의 삶터이니까.

- L (주최단위 운영위원)

주최 측 운영위원 L씨는 광화문과 비교하여 이태원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에 특히 주목하고 광화문과 이태원의 장소성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광화문광장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점유하고 갈등하고 타협하며 재구성된 정치적 장소다(신혜란, 2015).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2008년 광우병 사건 당시 촛불집회,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이어 최근까지, 정치적으로 진보-보수 사이의 다양한 갈등이 일어나고 스펙타클(spectacle)이 비춰지는 현장이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이슈, 특히 TDoR March의 ‘그만 죽여라(1회 TDoR March 구호)’는 메시지는 정치적 진영을 가로지르는 합성이었으며, 이태원에서 밀려나고 있고, 밀려난 이들을 위로하며, 과거의 기억이 남아있는 이태원이라는 장소를 재탈환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또 다른 인터뷰이 Z신부는 오랫동안 이태원에서 미/등록 이주민들을 도우며 연대 활동을 펼쳐 온 마을활동가이다. 그는 2018년 제1회 TDoR March에는 참여자로서, 그리고 2019년 제2회

8) 성별정정을 말한다.

9) 신혜란(2015)은 점유, 물리적 구성, 담론생산을 통해 특정 기억의 공간적 경계를 창출하고 재구성하는 활동으로서 ‘기억의 영토화’를 분석하였다. ‘기억의 영토화’ 개념은 주체들의 사회적 실천과 권력투쟁의 결과물로 기억 공간을 바라본다.



TDoR에는 연대발언자로서 참여했다. 16년 전부터 용산에 자리 잡은 그에게 이태원은 이주민들과 선주민들이 섞여 사는 ‘마을’이다. 그의 주 의제는 용산구에서 선주민들과 이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균열이라는 것은 그냥 이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네, 인거죠, 마을. 동으로 따지면 무슨 동 무슨 동. 이 동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삶이 부대끼고 부딪치면서 그 동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눈에 가시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곁에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이 우리랑 동등하게 안전해야 된다는 의미를 계속해서 ... (중략) ... (기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거죠. 자칫해서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마을에 있어 하나의 요소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아야할지를 이야기해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

- Z 신부(연대단위 참여자)

용산구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Z신부에게 이태원은 선주민과 미/등록 이주민, 다양한 종교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밀려난 이들, 성소수자, 빈민, 다양한 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마을이다. 그렇기에 그는 TDoR March는 유의미한 파장을 일으켰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파장은 ‘이태원’이라는 장소가 가진 장소성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았다.

‘이 행진 자체가 사람들에게 되게 질문을 던져주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좋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또 이 용산구 이태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질문은 늘 있어요. 좀 더 집중해서 특히 트랜스젠더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연대 발언문을 올리고, 사람들 중에서도 마을활동가분들이 그걸 읽으면서 ‘다시 한 번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의료보험이 하나도 안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졌다’라거나…….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오다가다 알게 된 트랜스젠더 분들이 되게 양가적인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아 재네 왜이렇게 시끄럽게 해? 저거 안한다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몰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되게 재밌어하는 거죠. “재네 저런 거 한다던데 시간 나면 이따 가 볼까?”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들으면서 이 행진 자체가 사람들에게 되게 질문을 던져주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 Z 신부(연대단위 참여자)

## 2. 행위자들의 전략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TDoR March라는 정치적 실천의 행위자들의 전략을 분석했다. 답변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 ‘정치적 실천’ 혹은 ‘행위’, ‘수행’ 등의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TDoR March에 참여한 경험과 감정 등을 물었다. 분석대상으로는 주최단위 참여자(‘트랜스해방전선’ 운영위원 L, 기획단원 Y), 연대단위 참여자(Z, N, D, S), 일반 참여자(K, M, H) 모두를 ‘TDoR March’를 구성하는 행위자로 보고 분석하였다.

각 인터뷰 자료들은 반복적 비교분석법의 절차를 따라 분석되었다. 첫째, 자료에 이름을 부여하는 ‘개방 코딩’의 과정을 거쳤다. 그 후 코딩된 자료를 범주 및 하위 속성으로 분류하여 범주화하였고, 마지막으로 구성된 범주를 코딩 전 원자료와 비교하면서 범주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범주 확인의 절차를 거쳤다.



## 1) 생존을 이야기하기

TDoR 행사의 주된 목적은 불화하기, 시끄럽게 하기. ...이 행진도 저희는 Parade가 아니라 March라고 명칭을 해요. 행진을 하고, 살고 싶다는 말을 쏟아내는 것. ...(중략)...당사자들이 불안을 호소하지 않으면, 더 불안한 삶을 지속하게 될 것이라라는 두려움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 L (주최단위 운영위원)

이번 2019 TDoR은 슬로건부터가 ‘보통의 트랜스들의 위대한 생존’이었죠. 너무 와닿는 슬로건이었습니다. 행진 구호가 대부분 ‘우리도 살고 싶다’라는 말로 끝났었는데, 행진하면서 외치다보니 거의 절규하듯이 소리를 질렀던 거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퀴어들이, 젠더퀴어들이 혐오로부터의 안전장치가 없는 사회에서 살다보니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곤 해요. 근데 정말 살고 싶거든요.

- D (연대단위 참여자)

트랜스젠더 ‘추모’가 쓰여있는 현수막과 행진 중 대표님의 언급<sup>10)</sup>으로 인해 많은 트랜스젠더가 죽임당했다는 사실도 알려져 성소수자 인권에 관심이 없던 사람일지라도 ‘이런 행사가 있구나’, ‘누군가 죽었구나’를 인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 S (연대단위 참여자)

TDoR March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는 ‘생존’이다. 제1회 구호인 “그만 죽여라, 우리도 살고 싶다”와 제2회 구호인 “보통의 트랜스들의 위대한 생존”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TDoR March는 그 무엇보다 트랜스젠더의 생존과 안전의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TDoR의 성격 자체가 트랜스포비아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죽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에 대한 추모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살아남은’ 트랜스젠더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연대하며 생존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은 ‘생존’이라는 긴급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시선을 끌고 정치적 의제로 끌고 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회학적으로는 ‘안보화Securitization’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행위이다. 안보화는 이슈를 안전Security와 관련된 의제로 설정함으로써 특정 지시대상Referent Object에게 실존적인 위협Existential Threat이 가해지고 있음을 선언하는 동시에,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조치Extraordinary Measures의 사용을 정당화하고 요구하는 행위이다. Buzan(1998)은 안보화의 조건으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는 힘과 대중으로부터의 인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존적 위협과,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피할 수 없다’는 특정한 수사적 구조, 그리고 특별조치로 촉발되는 상호관계적인 파급효과로 보고 있다. (Buzan, 1998)

거리에 직접 등장하여 생존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안보화 과정의 일부분으로 대중에게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실존적인 위협에 대해 알리고, 그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최 측에서 준비한 정의당 부대표의 발언은 의제의 정치화의 첫 걸음이기도 했다.

---

10) 행진 중 마이크를 잡은 주최측 ‘트랜스해방전선’의 대표는 행진 중 계속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트랜스젠더가 일상에서 느끼는 위협과 행사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 2) 드러내기

주된 키워드는 노출인 것 같은데. 비가시화된 인간들이 가시화된 공공의 영역에 노출되어서, 노출의 공포를 무릅쓰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과정.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발언의 장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은데, 위험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행사에 참여해서 걷는다는 경험 자체가 그 동안의 그 당위성을 말하는 기존의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의 토론회나 그런 곳에선 보기 힘든 개인과 집단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들을 정치적 실천으로 이끄는 중요한 장치로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 L (주최단위 운영위원, 1차 인터뷰)

숨는 게 싫었어요. 왜 항상 우리는 조용하게 촛불 들고 우리끼리 눈물을 흘려야 하죠? ‘우리도 좀 나뉘게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 L (주최단위 운영위원, 2차 인터뷰)

저는 지워지는 존재들에게 있어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첫걸음이 가시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존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그러나 이태원이라는 공간을 트랜스젠더와 앨라이들이 전유하며 큰 도로를 가로지른 것은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주변 상인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존재를 각인시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했을거라 생각합니다.

- H (일반 참여자)

(깃발을 든다는 것은) 당신들과 함께하기 위해 먼 길을 왔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말을 전하고자 하는 연대의 의미가 큼니다. 또한 부디 끝까지 살아남아 함께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의미도 있습니다.

- S (연대단위 참여자)

TDoR March가 기존의 조각보 등의 단체에서 행해오던 촛불추모제와 다른 것은 거대한 규모의 가시화에 있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도록 통제되는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대규모 집회와 행진으로 ‘드러내기’로써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는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사회에 각인시킨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사회 규범에 의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없었던, 발화의 권리와 공간을 박탈당한 서발턴들이, 성소수자라는 큰 카테고리 아래에서도 가장 비가시화되어 있던 트랜스젠더들이 직접 공간을 전유하고 행진을 함으로써 사회가 애써 숨겼던 이들의 존재를 폭로하는 것이다.

‘드러내기’ 전략의 또 다른 효용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확인하며, 자기를 긍정하는 기회가 된다는 데에 있다. 인터뷰이 S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지방에서 장거리의 이동을 했다. 일 년에 단 하루, 트랜스젠더들이 가시화하는 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S는 그가 속한 연대단위인 지방 인권단체의 깃발을 들고 행진에 참여했다. 그는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과정에서 ‘함께하기 위해 먼 길을 왔음’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 3) 유희하기

되게 행진의 모양이 기존의 운동권 방식에서 보였던 모습과는 조금 많이 달라.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강력한 워딩을 사용하거나, 뭘 민중가요가 나온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들의 방식으로 유희화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게 추모를 하겠다고 나와서



Marching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나오는 노래는 막 씨스타.... ‘우리들의 유희로 전유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 L (주최단위 운영위원)

사실 저는 퍼레이드라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법이라는 것은 항상 다수를 위해 먼저 존재하는데 이 시간만큼은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소수자를 억압하는 법이, 이 시간만큼은 약자의 편에 서서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것을 보장해주잖아요. 물론 그런 보장을 얻어내기까지도 차별이 존재하지만, 그에 반해 퍼레이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 시간만큼은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죠. 예를 들면, 행진 동안에 보행자들은 횡단보도조차 건널 수 없고 운전자들은 행진하는 사람들이 행진을 마치기까지 가만히 있어야 하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좀 통쾌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인도로부터 차도에서 행진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눈빛들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관찰하는 것도 꽤 재밌어요. 누군가는 신기해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욕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응원을 하기도 하지요.

- M (일반 참여자)

주최 측이 밝힌 또 다른 TDoR March의 전략은 유희였다. 비록 추모의 날이지만, 현 상황을 비판하고 아파하기보다 나름의 유희로 감정을 승화시키고 서로를 응원하는 의미이다. 주최 측이 행진을 위해 준비한 노래들은 대부분 자신을 긍정하는 내용의 가사를 가진 가요들<sup>11)</sup>이었다. 유쾌하게 나를 긍정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주최 측의 고려였다.

참여자 M은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행위 안에서 전복된 권력 질서를 본다. 그리고 그 안에서 ‘통쾌함’을 느낀다. 또한 행진(내부)을 바라보는 비성소수자 시민(외부)의 시선을 뒤집어, 내부에서 외부의 반응을 관찰하며 재미를 느낀다. 이러한 점에서 TDoR March의 행진은 유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4) 질문 던지기

균열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동네, 마을, 공간이라는 게 우리가 승인한 하나의 주체들, 주류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결코 그 사람들만으로 채워질 수 없다. 이 공간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 원한다는 것은 대체 누가 정하는거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측면에서 사실은 균열인거구요.

- Z 신부(연대단위 참여자)

복잡하고 모순된 행진의 양상이 있어요. 분명 여기 드러내려 왔지만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잖아요, 참가자들은. 이 모순적인 행동의 양상이 가시화한다 혹은 안한다로 선 그어지는 실천이 아니고 점진적이고 다중적인 행위다. 그래서 그 안에 다층의 가시화/비가시화의 경계가 있고, 각 참여자들과 주체자들은 일상적으로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미세하게 자신들의 행동을 교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안정감이나 자신감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용기나, 자기 탐색을 요구하는 의식적인 행위의 결과다. 뭐 다 같은 속도로 같은 등위에 다다르지도 않아요.

- L (주최단위 운영위원)

11) 실제 주최측의 플레이리스트의 일부이다: 2NE1의 ‘내가 제일 잘나가’, 바다의 ‘Mad’, 이효리의 ‘U-Go-Girl’,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등. 5·18 민주화운동 등을 상징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임을 향한 행진곡’도 있었다.



TDoR 다음날이 제가 참여하는 책모임 정기모임이었거든요. 밥을 먹고 이동하던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형, 어제 제가 이태원에 갔는데 트랜스젠더들이 행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왠지 형이 있을 것 같았어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존재’들을 처음 보기도 하고 해서 좀 무서웠다고 이야기해서 TDoR의 의미와 왜 그런 행진들을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 M (일반 참여자)

TDoR March가 던지는 질문은 다양하다. 마을 활동가로서의 Z 신부는 해당 행사가 사회에 던지는 질문에 집중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공공성이 누구에 의해 경계 지어지는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경계 지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장선으로 L은 단편화된 하나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미지를 거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경계를 넘나드는 트랜스젠더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때로는 사회의 규범에 맞는 몸으로, 때로는 정상성 바깥의 몸으로 다양하게 자신의 몸을 사유하고 행위하는 트랜스젠더들의 행위는, 공공성에 대한 경계의 투과성을 보여준다. 공공성에 대한 경계를 자유롭게 상황에 따라 넘나드는 행위자들의 모습은 ‘과연 이 경계가 그렇게 견고하고 절대적인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M은 일상생활에서의 질문을 발견한다. 그는 트랜스젠더에 대해 잘 모르는 지인과 대화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TDoR March가 해주었다고 말한다. 또한 일상적으로 마주하던 ‘형’ M이 그 곳에 함께 했다는 사실이 트랜스젠더와 연대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상상하게 한다.

## 5) 연대하기

저한테 교차성이라는 건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소수자성들이 서로 교차하는 가운데에서 ‘어? 우리가 의외로 같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구나’ 또 ‘서로한테 없는 것들은 서로가 서로한테 많이 제공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시너지효과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 게 중요한데, 다양성을 갖다가 나열만 해놓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그들이 교차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점에서 지금 ‘공간’이라는 이야기가 갖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공공’, ‘공간’, ‘공유성’, 이런 것들.

- Z (연대단위 참여자)

함께 모인 사람들이, 혹은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왜 사회에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느낀다. 동시에 그 자리에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아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점에서 또한 안도와 연대감을 느낀다. ... (중략) ... 난 트랜스젠더는 아니지만 성별 이분법적 사고에 함께 저항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는 점에서 참가자 분들에게 연대감과 편안함을 느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반대로 누구라도 사회에서 지워지고 죽임당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들어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함께 불안해지고 슬퍼진다. 내가 TDoR 행진에 참여하게 만드는 원동력, 나의 생존이나 삶에 직결되는 문제가 아닌데도 계속 관심을 갖고 같이 행동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내가 트랜스젠더 지인이나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연대감’인 것 같다.

- K (일반 참여자)

마지막 전략은, 대부분의 참여자가 공통적으로 갖는 정치적 실천으로서의 ‘연대하기’이다. 참여자 K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아니지만 여성으로서 본인이 느끼고 있는 ‘공포’와 ‘위협’



의 감정, 그리고 성별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저항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TDoR March 참여’라는 정치적 실천을 수행했다.

이러한 감정의 공유와 경험의 공유에서 교차성을 발견한 Z 신부는 향후 정치적 실천의 방향을 모색한다. Z신부에게 미/등록 이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불안정성이 트랜스젠더의 그것과 별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는 같은 (물리적)공간 위 다른 (사회적)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Z신부는 그 두 세계가 마주치고 서로 연대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 3. 변화하는 장소성

이번 장에서는 TDoR March 참여 이후 이태원의 장소성에 대해 참가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인터뷰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참여하기 전과 후에 이태원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는지에 대해 물었다.

연구 참여자	‘TDoR March’ 참여 전	‘TDoR March’ 참여 후
D	서울에서 꽤 문화적으로 다양성을 포용한 동네.	행진 중 별다른 충돌이 없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어서 좀 더 다양한 사람에게 열린 곳이 될 수도 있는 곳
K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가는 곳 밤에 다니면 위험한 곳. 유흥의 거리.	내가 신경 쓰고 함께 연대하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상징적인 공간. 더 알아보고 싶은 공간.
S	게이들이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흥의 거리.	차별과 혐오로부터 죽임당한 동지들을 추모하는 공간.
M	맛집이 많은 곳. 외국인이 많은 동네.	친근한 장소. 내가 점거했던 장소.
H	외국인이 많고 위험한 동네. ‘이태원 살인사건’이 많이 생각났다.	성소수자 중에서도 비교적 더 큰 혐오의 대상이 된다고 여겨지는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장소로 골랐다는 점에서, 가장 안전한 곳. 다양성과 희망의 공간의 가능성이 있는 곳.

[표 2] 이태원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장소성 인식 변화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TDoR March’ 참여 후 전반적으로 친근감이 늘고, 성소수자 공간으로서의 상징성에 대한 의미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이태원에 거주하고 있고, TDoR March에 대해서 알고 있는 C, G와의 인터뷰를 통해 거주자로서의 인식 변화를 물었다.

감사하고, 절묘하죠. 서울에 이태원만큼 다양성이 살아숨쉬는 공간이 또 있을까 싶어요. 한국의 소위 ‘다문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태원에 오기만 하면 피부로 알 수 있고, 이태원 근처에 살면 일상에서 느낄 수 있거든요. 용산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이태원 광장에서 다양성이라는 이름의 평화를 실천하는 것도 기쁘고요. TDoR이라는 행사가 이태원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여기에 산다는 것에 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네요. 이제 용산이라는 지역에, 매년 11월에 이태원 광장에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사가 있다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할 것 같아요. 이태원에 ‘지구촌축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들 알았으면 좋겠네요.구청장, 구의원 같은 사람들 와서 인사도 하고 그래야할텐데. 그죠?

- C (이태원 거주자)

저는 TDOR 자원활동가로서 참여를 했었는데 동네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이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참가자로서 자리를 지켰는데 작년과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귀에 들리는 직접적인 혐오발언이 줄어든 것 같아서 새로웠습니다. 또한 저는 이태원 부근에서 일하는 노동자이기도



한데 일하다 보면 ‘정신병자’라든가 ‘호모세끼’ 같은 혐오적 맥락의 발언을 종종 듣기도 하거든요. 이태원에서 앞으로도 매년 TDOR 행사가 열려서 이 동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 G (이태원 거주자, 제2회 TDoR 자원활동가)

C와 G는 다양성이 실현되는 공간으로서의 이태원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고 언급하였으며, 더 공식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태원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 표집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간접적으로나마 마을활동가인 Z 신부에게서 이태원 거주민들의 반응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일단, 작년에 TDoR 갔다 오고 나서 동네분들하고 동네 마을 활동가 분들하고 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게 되어서 가시적인 측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용산나눔의집이 여기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미등록 이주민 분들 관련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텐데, 동네 마을 분들이 마을회의나 밥상모임 같은 데 가면 물어보세요. “와 신부님 이거(TDoR March) 봤는데, 이거 뭐예요?”라고 물어보시거나 “아 몰랐는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게 있었네요? 물어보시니까. ... (중략) ... 우리 미등록 이주민분들은, 그냥 이주민분들이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보수적이에요. 왜냐면 문제 생기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Father가 거기 가서 우리와 연대하듯이 또 다른 분들과 연대했어’라고 알고 있죠. 딱 그 정도 선인 거 같아요. 지금은. 우리와 같은 minority가 있는 거고 그 minority와 용산 나눔의 집은 어떤 방식으로든 연대하고 있구나, 정도? 그 정도죠 지금은 사실은. 그 이상은 뭐 얘기할 단계는 아닌 거 같아서.

- Z (연대단위 참여자)

아직 2회밖에 되지 않은 TDoR March가 이태원의 지형을 크게 바꾸고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조금씩 존재를 알리고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단계임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주민 커뮤니티의 경우 아직 이태원에 트랜스젠더 커뮤니티가 있음을 인식하는 정도로 대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두 차례 진행된 TDoR March가 앞으로 대화의 지점을 만들어 내고, 연례행사로서 자리잡아가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전개 과정을 지켜봐야할 것이다.

## VI. 결론

### 1. 연구의 결과

본 연구는 공공장소를 서발턴 대항공간Subaltern Counterpublics의 정치적 실천의 전략적 선택으로 보고, 도시에 대한 권리에의 함의를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이태원에서 열린 TDoR March 행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위주체들, 즉 서발턴Subaltern들의 정치적 실천에 있어 공공공간이 어떤 전략적 위치를 점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서발턴 대항공간이 형성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참여 주체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도시에 대한 권리를 향한 운동에서의 서발턴 대항공간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 결과, 정치적 실천의 행위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서발턴 대항공간으로서의 공공공간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다양한 전략을 선택하여 공간을 전유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에 있어 공공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공공간의 전유로부터 다양한 효능감을 얻고 있었다.



비록 학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Lefebvre의 ‘도시에 대한 권리’에 대한 언어가 부재하더라도, 이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와 수사로 주체적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발턴 대항공간의 형성들이 공공공간의 공공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그 경계를 부수는 과정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에 대한 서발턴 대항공간의 중요성을 볼 수 있었다.

## 2.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는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있어 서발턴 대항공간이 도시공간에, 그리고 서발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현, 혹은 최근 도시 연구에서 등장하고 있는 ‘포용도시’의 실현에 있어서 서발턴 대항공간은 다양한 포함과 배제의 경계들을 드러내줌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도시계획가 및 행정가들이 이러한 공공공간에서의 서발턴 대항공간의 탄생과 서발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2018년 제10회 성소수자 인권포럼에서 도시 연구자 ‘제니(가명)’와 ‘알파카(가명)’는 종로3가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어떻게 성소수자 공간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오랫동안 게이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대표적인 성소수자 공간으로 기능하던 종로3가가, 익선동의 젠트리피케이션과 함께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공간에서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서울시가 종로3가의 성소수자 (사회적)공간과, 그 맥락과 역사를 읽어내지 못한(않은) 탓이다. 본문에서 인용한 Mithcell(1995)의 논문에서 Mitchell은 도시계획가들과 토지소유주들이 노숙자들의 공간이었던 People’s Park를 어떻게 갈취했는지, 어떻게 그 장소성을 파괴했는지를 예로 들며, 도시계획이 공공공간을 존중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도시계획 및 공간계획에 있어 지도에 드러나지 않는 장소의 맥락, 즉 그곳에 위치한 사회적 공간들, 혹은 다양한 공공공간Publics들을 읽어내야 함을 시사한다.

서발턴들의 정치적 행위 실천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공공공간은 국가 권력에 대항해 하나의 평형추로 작동할 수 있는 비(非)-통치적non-governmental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으로서 서발턴들의 정치 행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다양한 서발턴 대항공간들의 등장은 자율적인, 공공영역 간 조화를 이루는 형태의 사회를 상상할 수 있게 한다(Fraser, 1990).

연구자는 본 연구의 참여자인 Z신부와 함께 다양한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도시연구자들과 함께 ‘주거권’을 주제로 세미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해당 경험에서 연구자는 ‘도시에 대한 권리’, ‘전유’ 등과 같은 학술적 개념들과 담론들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쥐어준다는 인상을 받았다. 실제로 당시 세미나에 함께 참여했던 Z신부는 그의 오랜 활동 경력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Lefebvre를 언급하거나 ‘도시에 대한 권리’, ‘주거권’ 등을 언급하며 더욱 풍성한 답변과 통찰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이러한 세미나를 경유하거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진행을 통해 장기적으로 실행연구의 성격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TDoR March라는 단일 사례를 살펴보는 데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표집의 어려움으로 구 행정가, 도시계획가 등의 입장을 들어보지 못한 점, 사례와 관계없는 거주자들의 의견 등을 살펴보지 못한 점에서도 데이터 수집의 한계가 있었다. 추가적인 타 사례 연구와 TDoR March 사례의 앞으로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본 연구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현수. (2010). 도시에 대한 권리 :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 강현수 지음.
- 고민경. (2009). 초국가적 장소의 형성 : 이태원을 중심으로 바라본 서울의 세계화 = Making a Transnational Place : Seeing a Globalization of Seoul from Itaewon / 고민경.
- 김남주. (2000). 차이의 공간을 꿈꾸며: '공간의 생산'과 실천. 공간과 사회, 14, 63-78.
- 김동완. (2014). 반영토의 정치과정과 공공공간. 한국공간환경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13-120.
- 김애령. (2012). 다른 목소리 듣기. 한국여성철학, 17, 35-60.
- 김준호. (2011). 공공공간에 대한 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시론. 공간과 사회, 36, 35-65.
- 김현철. (2015). 성적 반체제자와 도시공간의 공공성. 공간과 사회, 25(1), 12-62.
- 루인. (2006). 젠더를 둘러싼 경합들 gender dysphoria. 여/성이론, (15), 289-304.
- 루인. (2010). 규범이라는 젠더, 젠더라는 불안. 여/성이론, (23), 48-75.
- 루인. (2013). 젠더, 인식, 그리고 젠더폭력. 여성학논집, 30(1), 199-233.
- 박지혜. (2017). 서울 시청 앞 광장의 공간 분석과 도시 공공성의 변천 과정.
- 신승원. (2016). 앙리 르페브르 / 신승원 [저].
- 신혜란. (2016). 기억의 영토화 : 세월호 기억공간 형성과정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57, 115-154.
- 유기웅.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 Understand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 유기웅 [외] 지음.
- 윤은주. (2017). 정치적 행위와 서발턴의 유목적 정체성. 사회와 철학, (33), 81-104.
- 이강원. (2013). 공공 공간의 전유와 배제 논리. 대한지리학회지, 48(6), 944-966.
- 이현재. (2012). 다양한 공간 개념과 공간 읽기의 가능성 - 절대적, 상대적, 관계적 공간개념을 중심으로 -. 시대와 철학, 23(4), 221.
- 이현재. (2015). 성소수자의 인권도시운동과 탈-전통적 연대 개념의 재구성. 범한철학, 78, 353-378.
- 조수미. (2016). 유희를 통한 정치적 실천과 성소수자 집단정체성의 변화. 아태연구, 23(1), 175-215.
- 한유석. (2013). 성소수자들의 공간 전유와 커뮤니티 만들기. 서울도시연구, 14(1), 253-269.
- 한운애. (2015). '축제적 전유'를 통한 공공공간의 재구성 핀란드 '레스토랑 데이'를 사례로. 공간과 사회, 51, 63-94.
- 홍예륜. (2019). 지방도시의 퀴어 축제를 통해 형성된 다양성 레짐 : 대구, 제주, 부산을 사례로 / 홍예륜.
- 황진태. (2011). 도시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광장의 정치. 공간과 사회, 35, 42-70.
- 황진태. (2011). 2008년 촛불집회시위의 공간성에 관한 고찰. 경제와사회, 262-289.
- 황진태, & 박배균. (2018). 2016년 촛불집회시위의 공간성에 관한 고찰. 공간과 사회, 65, 166-200.
- Buzan, B., 1998, "1.Security Analysis: Conceptual Apparatus",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Lynne Rienner Publishers.
- Doan, P. (2007). Queers in the American City: Transgendered perceptions of urban space. *Gender, Place & Culture*, 14(1), 57-74.
- Doderer, Y. P. (2011). LGBTQs in the City, Queering Urban Spac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5(2), 431-436.
- Foucault, M., & 오토르망. (2011). 안전, 영토, 인구 :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 미셸 푸코 지음 ; 오토르망 옮김.
- Fraser, N. (1990).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ting Democracy. *Social Text*, 25-6, 56-80.
- Fraser, Honneth, 김원식, 문성훈, & Honneth, Axel. (2014). 분배냐, 인정이나? : 정치철학적 논쟁 / 낸시 프레이저, 악셀 호네프 지음 ; 김원식, 문성훈 옮김.
- Lefebvre, & 양영란. (2011). 공간의 생산 / 앙리 르페브르 지음 ; 양영란 옮김.
- Massey, & 정현주. (2015). 공간, 장소, 젠더 / 도린 매시 지음 ; 정현주 옮김.
- McDowell, L., & 여성과 공간 연구회. (2010). 젠더, 정체성, 장소 :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 린다 맥도웰 지음 ; 여성과 공간 연구회 옮김.
- Mitchell, D. (1995). The End of Public Space? People's Park, Definitions of the Public, and Democrac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5(1), 108-133.
- Shepherd, & Sjoberg. (2012). Trans- bodies in/of war(s): Cisprivilege and contemporary security strategy. *Feminist Review*, 101(101), 5-23.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2018). 성소수자 인권포럼 자료집